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총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 “내년 음력설 맞춰 완결, 보책은 추석에 맞춰 발간” “한문으로 된 CD파보 입력하려면 한글 번역 필수”

### 甲洙회장, 편찬일정 등 재확인



甲洙회장(오른쪽)을 비롯한 편찬팀 임원들이 相億일가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이하 「인터넷족보」로 약칭한다) 편찬팀은 지난 7월19일 오후 2시30분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수단 입력 및 편집을 맡고있는 족보제작 전문회사인 「뿌리미디어」의 韓相億사장으로부터 ①「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발간에 따른 주요 체크항목 ②「인터넷족보」

편집현황 및 구축 주기 등에 관한 진행상황을 브리핑 받은 다음 「인터넷족보」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 ▶관련기사 2·3·8면

甲洙회장은 브리핑이 끝난 후 “인터넷족보”는 오늘의 우리 세대가 후손들에게 승계해 주어야 할 가장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계

획된 일정에 따라 내년초 음력설에 맞춰 「인터넷족보」를 완결하고, 내년 가을 추석에 맞춰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를 전질(全帙)과 파보(派譜)형태의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甲洙회장은 이어 “한글세대인 후손들을 위해 한글과 한문을 병기하는 「인터넷족보」가 오늘날의 대세인데 서원군파와 문간공파에서 제작한 CD족보는, CD자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내용이 한문만으로 입력되어있어 「인터넷족보」에 입력하려면 한문을 번역하여 한글을 병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청주한문의 「인터넷족보」를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명문족보로 만들기 위해 모든 종파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규 수단 입력 1개월 단위로 개통” 相億일가, 편찬팀회의서 브리핑

▲신규 접수된 수단을 입력하여 1개월 단위로 개통하겠으며,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은 1~2개월 이내에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후 잘못된 입력내용은 중앙회에 연락하면 즉각 정

정되어 1개월 이내에 수정된 족보를 볼 수 있다.

▲서원군파, 문간공파의 CD족보는 한자만으로 편집되어있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한글과 한문을 병기하여 입력하려면 번역이 불가피하다.

▲보책(譜冊)은 「인터넷족보」의 구축이 완료된 후 전체 페이지와 주문수량을 확인한 다음 교정이 완료된 파보(派譜)부터 제작, 반질(頒發)하면 될 것 같다.

▲족보편집업무를 대행하는 다른 업체들이 채택하고있는 「인터넷족보」기능 중 잘 된 기능은 추가로 개발하여 지원하겠다.

▲7월 현재 약 32,000페이지 분량의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번역 및 편집작업을 완료했다. 한자로 된 6교대동족보를 한글로 번역, 한글과 한문을 병기하여 편집하고 신규로 접수된 수단을 입력해 본 결과 6교대동족보 보다 약 45%정도 페이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교대동족보 약 37,600페이지를 한글로 번역, 한문과 병기하여 편집하고, 신규 수단을 입력했을 경우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는 60,000페이지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수단신청 탄력 붙어 점차 늘어날 추세 일부 종파·지역총친회는 이미 사전준비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은 대부분의 종파문중과 광역시·도총친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고, 일부 종파 및 지역총친회에서는 이미 많은 수단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0년 8월에 일단 마무리된 제1단계 편찬사업에서 자체적인 CD파보 제작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서원군파중중(회장 敬洙)과 문간공파중중(회장 駿錫)도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밝히고 있어 일가들의 수단신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원군파 敬洙회장은 지난 6월 14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은행나무집에서 열린 서원군파내 중진들의 친목모임인 서정회(西情會·회장 吉洙) 총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이 정리된 진짜 대동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제

하고 “우리 서원군도 이번에 적극 참여하여 제대로 된 족보 편찬에 협조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甲洙회장에게 큰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면서 만장의 박수를 유도한 바 있으며, 문간공파에서도 지난 7월7일 문간공 사당에서 모임을 갖고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협의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지난 6월과 7월 초순에 걸쳐 15개 이상의 종파에서 900여명의 수단신청이 있었는가 하면, 중앙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수단신청요령과 자신의 종파를 찾아달라는 일가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편찬팀은 편찬사업의 홍보와 수단신청 독려를 위해 종파문중과 광역시·도총친회 순방을 계속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2·3·8면

### 편찬일정 및 수단

#### ▲편찬일정

- ① 수단 접수기간 :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으로 한다.
- ② 입력 및 개통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으로 한다.
- ③ 2013년 상반기 중 완결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종파 또는 개인의 주문을 받아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한다.

#### ▲수단금

- ① 수단 비용은 1인당 12,000원 (부부는 1인으로 간주)이며, 기혼자, 미혼자, 출가녀, 신규 입보자, 사망자, 내용 수정 등은 수단금을 납부해

야만 족보에 등재된다.

- ② 1건 기준 50명 이상 단체로 접수할 경우 30%를 할인하여 문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 ▲사진 등재비

사진 1매당 12,000원이며, 사진은 개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사진, 묘소, 묘비, 묘소약도 사진 등을 등재할 수 있다. 수단신청시 함께 하면 된다.

####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 예약

「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 또는 파보를 보책으로 원하는 일가는 수단 신청시 1질당 5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책가격은 주문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대로 추후에 통보한다.

# “전반적으로 적극적 참여의지 보였다” 종파문중 · 지역종친회 순방 긍정 평가



편찬팀 陽命고문이 인천시 종친회에서 「인터넷 족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편찬팀, 순방 계속하기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위원회 편찬팀은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을 위시하여 陽命고문, 益洙고문,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백준, 星燮부회장, 丙鏞양혜공파회장, 相容부유사, 鍾仁중앙회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찬팀이 수단신청 독려와 홍보를 위해 6월 중 여러 종파문중과 광역시·도종친회를 순방한 결과를 점검하는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계속 홍보와 독려를 위한 순방을 계속하기로 했다.

陽命고문,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백준, 成龍, 星燮부회장 등 6명으로 편성된 편찬팀 임원들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국의 15개 이상의 종파문중과 광역시·도종친회를 순방하면서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을 재개하게 된 배경과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종중 일가들이 빠짐없이 수단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달라고 독려했다.

▶ 관련기사 1·3·8면

甲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를 순방한 편찬팀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생스럽지만 편찬사업을 유감없이 완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순방을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甲洙회장은 또한 “淸韓閣 건립 때 선도적 역할을 한 감사공파를 비롯한 여러 종파들이 이번 편찬사업에서도 앞장을 서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일가들이 보책 신청 등에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책제작비 등을 개략적으로라도 산정해서 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편찬팀 임원들은 순방결과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陽命고문 : 어떤 곳에서는 편찬팀 임원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감명을 받았다. 순회한 모든 곳에서 일가들의 수단신청을 적극 독려했다는 약속들을 했다. 앞으로는 수단신청 때 사진도 많이 신청하도록 독려하겠다.

▲ 益洙고문 : 7월 7일에 문간공파의 뜻을 모으는 모임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6교 대동족보 이후에 등재해야 할 일가들에 대한 입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며, 사진 입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

▲ 駿錫편찬소위원장 : 순회한 모든

종파와 지역종친회에서 수단신청 독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편찬팀 임원들이 순회하면서 독려하고 홍보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파 회장들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번에 누보(漏譜)되면 훗날 누락된 종원들의 후손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수도 있다.

▲ 基虎도유사 : 가는 곳마다 의욕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종파를 모르는 일가들의 수단신청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많은 일가들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족보를 편찬하겠다.

▲ 백준중앙회부회장 : 순회한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특히 대전에서는 세마공문중의 孝東전회장, 연동회장, 충성공문중의 鮮敎회장, 대전시종친회 甲洙회장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 고무적이었으며 성과가 컸다. 35개 종파를 비롯 가급적 많은 종중을 직접 찾아 독려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 星燮중앙회부회장 : 순방한 대부분의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 임원들과 일가들은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사진을 영정처럼 입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 7월15일 현재 수단신청 900여명 준비한 종파문중 많아 계속 이어질듯

지난 6월부터 재개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7월 10일 현재 15개 종파문중에서 900여명의 수단이 신청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여러 종파문중에서 많은 문중일가들의 수단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현재 15개 종파문중의 수단신청은 다음과 같다.

▲ 문정공파문중 235명 ▲ 정당공파문중 183명 ▲ 장도공파문중 125명 ▲ 양혜공파문중 107명 ▲ 예빈윤공파문중 95명 ▲ 공안공파문중 52명 ▲ 인양공파문중 43명 ▲ 충성공파문중 22명 ▲ 문양공파문중 17명 ▲ 양이공파문중 11명 ▲ 정량공파문중 9명 ▲ 이양공파문중 6명 ▲ 몽계공파문중 2명 ▲ 감사공파문중 1명 ▲ 직사관공파문중 1명

### 알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증보비)
- ◆ 청주한씨중앙종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 元敎일가, 대한민국 사진대전 입선 7월 24일~30일 예술인센터에서 전시회 개최



“방어를 잡았다” 제주도 해녀가 작살로 방어를 잡아올리고 있다.



사진작가인 元敎(중앙회 재정부장)일가가 지난 7월 5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사진대전에 제주 해녀가 작살로 방어를 잡아올리는 장면을 촬영한 작품을 출품, 입선했다. 이 밖에도 우석(부산), 상수(대전), 진관(부산), 철동(서울), 태원(경기 과천), 향순(경기 용인)일가 등 6명의 일가들이 입선했으며,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1층 전시장에서 입선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계좌번호

◆ 국민은행: 352202-04-033585 / 예금주: 한양명

# 제4회 대전뿌리문화축제 성황 「대한민국 성씨이야기」주제로



대전 뿌리문화축제장에 입장하는 청주한씨종친회



뿌리공원내 청주한씨 조형물

### 조형물 작품명은 '창조(創造)'

청주한씨를 상징하는 뿌리공원내 조형물의 작품명은 창조(創造). 휘(諱) 蘭시조의 음덕으로 100만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는 대화합의 뜻을 담고있다. 청주한씨는 기자조선(箕子朝鮮)에서 기원하는 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성씨이다.

따라서 인지(人智)가 발달하는 초기과정에서 부족사회로부터 점차 가족사회로 변천하는데, 우선 이성(異性)의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기본이 되어야하는 바본원적인 형태를 형상화한것이다.

### 조형물의 기재내용

청주한씨는 고조선 기자(古朝鮮 箕子)로부터 계출(系出)된 마한왕조(馬韓王朝)의 후예로서 단일성씨로는 네 번째가 되는 명문거족이다.

시조는 한란(韓蘭)이니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탄생하시어 청주시 방서동에 정착, 고려 개국 공신으로 벼슬이 문하태위(門下太尉·고려조 최고관직)으로 현 국무총리격임)에 오르셨으며 시호(諡號)는 위양공(威襄公)이다.

「대한민국 성씨이야기」뿌리문화의 향연」을 주제로 한 제4회 대전뿌리문화축제가 지난 5월 25일부터 3일간 전국 유일의 성씨비공원인 대전중구 뿌리공원에서 총 관람객 17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고 27일 폐막되었다.

가족간의 사랑과 효(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축제는 전국 160여 성씨 문중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열렸으며, 퍼레이드는 문중의 특색있는 전통 복장 등 많은 볼거리가 선보여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 삼한갑족 청주한씨 문중도 37번째로 입장하면서 중앙회에서 백준부회장, 星燮중무담당부회장, 成龍부회장, 樁永부회장, 喆洙관악구회장 등 임원들과 대전시종친회 甲洙회장,

경남상무 등 5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했으며, 양절공 29세 수교일가께서 문중 노래자랑에 참여해 흥겨운 향연의 자리가 되었다.

뿌리문화 축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각 문중이 중앙종친회 주관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즐기는 전국 축제로 명성이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청주한씨 문중은 대전종친회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해온 아쉬움이 있으나 2013년부터는 중앙종친회 주관으로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계 유일의 성씨 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기위해 1997년 11월 1일 개장한 가족친화 테마공원이다. 도심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는 충효(忠孝)의 산 교육장이다. 현재 136개의 성씨별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148개의

성씨가 추가로 조형물 설치를 신청하고 대기중에 있으며, 한국족보박물관에는 전국 문중에서 기증한 족보 등 사료를 전시, 조상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종친간 단합과 만남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있다.



뿌리문화축제에 참가한 임원들과 일가들이 조형물 앞에서 기념촬영

## 편찬팀의 종파·지역종친회 순방일정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의 陽命고문, 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백준, 成龍, 星燮부회장 등 6명의 임원들은 편찬사업이 재개된 지난 6월부터 7월13일까지 15개 이상의 종파와 지역종친회를 순방하면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을 홍보하고 수단신청을 독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순방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미 순방했거나 앞으로 순방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7일 감사공문중(고문 陽命, 회장 權洙·참석임원 11명) : 계과

문중이 모여 분할하여 교정을 보기로 했다.

▲6월 7일 판서공문중(회장 相英·참석임원 10명) : 相英회장 등 임원들이 지난 1년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중일가들을 찾아 수단신청을 독려, 약 3,000명으로부터 수단신청의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다

▲6월 15일 영흥공문중(회장 樁永·참석임원 35명) : 출력해서 전달받은 문중의 족보를 교정중이며 일가들에게 수단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6월 18일 충정공문중(회장 相根,

전회장 현수·참석임원 15명)

▲6월 21일 전북도종친회(회장 泳敎와 안양공문중(중손 상훈) : 상훈 중손의 일가들이 모여 족보 복사본을 교정중에 있다.

▲6월22일 인천시종친회(회장 창섭, 전회장 상기, 회양공회장 천식·참석임원 38명) : 인천시 이사회에 회양공 천식회장과 판사공파문중에서 참석했으며 족보 복사본을 교정중에 있다.

▲6월26일 세마공문중(회장 연동, 충성공문중회장 선교, 대전시회장 갑수·참석임원 15명) : 세마공문중 연동회장은 6교대동족보에 입보되지 않은 정선공파 광주일가 1,000여명이 수단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27일 대구·경북종친회(회장

희섭, 몽계공문중회장 영수·참석임원 20명) : 몽계공문중 영수회장, 영천군종친회에서도 참석, 족보 복사본 교정중이라고 밝혔다.

▲7월 7일 문간공문중(회장 駿錫) ▲7월 11일 도장동공문중(회장직무 대행 明夫, 전회장 三錫)

▲7월 13일 서울청장년회(회장 三郎)

▲7월 17일 삼재관리위원회(회장 東錫)

▲7월 18일 무농회(회장 규동)

▲7월 20일 월포공문중(회장유환)

▲7월 30일 서울 동작구종친회(회장 우인)

▲8월 7일 교위공문중(회장 明洙) ▲8월 11일 울산시종친회(회장 成國)

### 柳巷先生 詩集 重刊기념회 개최 문경공파종회 · 유항사상연구원 주최



益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益洙회장, '柳巷사상 재조명' '先覺者 柳巷 韓脩'도 저술

柳巷 韓脩선생 시집 중간기념회가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여명의 외빈과 청주한문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益洙일가가 회장을 맡고있는 청주한씨문경공파종회와 유항사상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회는 고려말 학덕과 의행(義行)으로 사림(士林)의 의범(儀範)이었던 文敬公(諱脩, 號柳巷)의 유시집 《柳巷선생시집》을 益洙일가께서 중간편저(重刊編著)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으며, 益洙일가의 저서 「柳巷사상 재조명」과 「高麗의 거

儒 先覺者 柳巷 韓脩」도 배포되었다. 문경공파종회 東春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회에서는, 李錫浩박사(전 서울대교수·국문학자), 李世濬 고양향교 典校, 金舜起 매월당 김시습문학관 사무국장 등의 내빈축사, 朴永慶 대한시조협회 고양시지회장의 柳巷詩詠(시집 중 2수), 문중대표로 甲洙중앙종친회장의 頌辭가 있었다. 益洙문경공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柳巷(1333~1384)선생은 일찍이 15세에 등과(登科)하시어 30유년 환로(宦路)에 험난함도 겪으셨으며 세인에 칭송되시었고, 당대의 석덕거유(碩德巨儒)와 교유하시며 우왕(偶王)의 사부(師傅)로서 또는 후학을 훈회(訓誨)하신 자취를 살필 수 있다”고 말하고 “선조의 아름다운 자취(懿蹟)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면 불명(不明)이요 알고도 전하지 아니함은 불인(不仁)이라 선세(先世)조상의 유업을 후세에 전승시키려는 표장지사(表彰之事)는 인륜지도(人倫之道)의 대본(大本)이니 이는 선조를 모시는 후손된 자에게 소명(召命)된 책무(責務)라는 선훈(先訓)에서 깨우침을 얻어 시집을 중간하기까지 6년여, 학문이 깊은 많은 분들의 각별한 도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종친회 설봉산 산행



산행후 '항산진사백자도예촌'에서 기념촬영

경기도종친회(회장 光傳)는 회원의 친목과 단결 및 건강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 20명의 회원들이 경기도 이전에 있는 설봉산(394m) 등산을 한 후 영순 자문위원의 안내를 받아 '항산진사백자도예촌'을 방문, 도예 '명장' 임항택선생으로부터 도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싸인회를 갖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일행은 하산 후 영순 자문위원이 '임금님 쌀밥집'에서 베푼 점심식사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光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친회의 발전과 화합

을 강조하는 한편 「제7교 한글인터넷대동족보」와 보책으로 간행될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주위 일가분들께 널리 알려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산행에는 이택고문, 영택고문, 영순자문위원, 동역자문위원, 광전회장, 이택상무이사, 창영사업이사, 기철조직이사, 정수이사, 남수이사, 운전이사, 승서이사, 상훈이사 등 임원들을 비롯 20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글:상무이사 이택>

### 善教일가 국회문광위원장에 선출



19대 국회의원인 善教(사진·새누리당)일가는 지난 7월 10일 국회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善教일가는 성균관대학 물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MBC·SBS·경인방송 아나운서 및 MC로 활약하다가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제17·18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5월 정기산행 仙遊島로 청한산악회 창립 15주년 맞아



청한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 2012. 5. 26~5. 27. 선유도 (촬영 한원교)

청한산악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5월의 정기산행(정기총회 겸)을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시 앞바다에 위치한 환상의 섬 선유도로 다녀왔다. 26일 낮 군산항에 도착한 46명의 회원들은 페리호로 1시간 정도 걸려 오후 4시경 목적지인 선유도에 여장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다함께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 뒤편에 있는 산에 올라 녹음으로 우거진 등산로를 따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선유도의 전경 중 일부를 관망했다. 하산 후 해안가에 둘러앉아 서해로 떨어지는 낙조를 감상하며 낚시로 잡은 생선을 구입, 즉석에서 회를 만들어 술잔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니 마치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닐까 하는 행복함이 느껴진다. 다음날 오전 일정은 갯벌체험, 카트여행, 자전거 트레킹, 등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선택의 편의를 위해 자유 시간으로 배정했다. 망주봉 정상에 오르니 화창한 날씨 속에 관망되는 선유도의 전경은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풍경 그 자체에 탄성이 절로 나오며 선유도란 명칭의 의미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선유도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고군산군도의 크고 작은 섬 스물네 개 중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섬 북단에 해발 100여m의 선유봉이 있는데 그 형태가 신선이 마주앉아 바둑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하여 선유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2.13km<sup>2</sup> 면적의 5개 마을에는 5백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수군진영이 설치되었었고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이 이 곳을 찾아 열하루 동안 머물렀다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비경을 품고 있는 4개의 섬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일정 상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선유도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섬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에 선유 8경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고, 화려함을 넘어 장엄하기까지 한 서해 일몰이 감동적인 곳이었기에 이번의 선유도 산행은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첫날 석식 후 개최된 제15회 정기총회에서는 大熙감사의 감사보고 후 2011년도 결산(안)을 심의, 가결하였고 楸泰부회장을 고문으로 선임하였으며 산악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단합해 나가자고 결의를 하였다. 본 행사를 위해 甲洙중앙회장과 駿錫고문을 비롯한 많은 일가분들의 찬조가 있었고 특히 천안의 楸泰고문께서는 현장에서 중식비용으로 100만원을 내놓아 감사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6월에는 30명의 회원들이 한수이북의 최고의 명산이자 예부터 경기의 소금강으로 일컬어지는 동두천시 소재 소요산(587m)으로 산행하여 자재암, 원효폭포 등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글:중앙회상무 鍾仁>

## 소유종토중 전답만 처분키로 基虎 도유사로부터 「인터넷족보」 설명도 청취



基虎(왼쪽) 도유사가 「인터넷족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문간공파 회장단회의 결의

문간공파종친회는 지난 7월 7일 남양주시 진접읍 금고리 신재묘에서 駿錫회장을 비롯한 21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제2차 회장단회의를 열고 2012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와 지난 임시총회시 종토 일부처분에 관한 안건을 재협의한 결과 임야는 매매를 보류하고 전답만 처분하기로 결의 했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대하여 基虎 도유사로부터 인터넷 족보편찬에 적극 참여해야한다는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편찬일정, 수단신청의 신도적 역할, 수단신청방법, 수단금 등에 관한 설명이 있던 다음 진지한 토론과정에서 종원들의 범례주지, CD소유자의 간편한 수단제출방법, 정묘육교대동족보에 수록자 확대등재 등이 거론되었다.

## 서울청장년회 무등산 산행



서울청장년회(회장 三郎)는 지난 6월 2일 고대하던 단비의 반가운 소식과 함께 30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의 진산으로 불리는 무등산(1,187m)으로 친목도모와 결속을 위한 아유회를 다녀왔다.

광주에 도착 무등산의 최고봉인 천왕봉 일대에 오르니 서석대, 입석대, 규봉 등 수직 절리상의 암벽이 석책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루고 있었으며 마치 옥새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새인봉은 장불재에서 서쪽능선 상에 병풍같은 바위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답다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하는 명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광주일대와 푸르른 신록으로 어우러진 주위경관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하산 후 한방오리백숙으로 담소와 술잔을 나누며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는 특별히 삼재관리위원회 동석회장과 상태부회장께서 참석해 환영해주었다. 동석회장은 “오랜 가뭄이 계

속되어 애태우던 중 마침 서울에서 청장년회원들이 비를 몰고 와서 단비가 내리니 반가움이 배가되었으며, 서울청장년회가 더욱 발전을 하고 종친회의 큰 일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인사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전남 장성에서 1박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잘 가꾸어진 진입로와 푸르른 실록에 경관이 아름다운 백양사를 둘러보았고,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아름다운 곳 강천산의 계곡과 구름다리를 둘러 산행을 한 후 맑은 물가 푸른 숲 계곡에 둘러앉아 야외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하는 식사 자리는 가족 간에 나들이 나와 맞는 식사처럼 화기애애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三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조 할아버님의 음덕으로 보람된 단합대회를 함께 기쁘고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며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청장년회 조직을 활성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 전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글:相分>

## “삼재의 오늘이 있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할아버님의 음덕과 일가들 성원으로 극복”



이·취임식 후 希天원쪽 두번째회장과 東錫신임회장 내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希天삼재회장 재임 17년 회고

지난 3월 3일 삼재관리위원회 회장직을 東錫총무에게 물려주고 사임한 希天회장은 재임 17년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6세조 예빈경부군(禮賓卿府君), 7세조 문혜공부군(文惠公府君), 8세조 제학공부군(提學公府君)의 추모봉(追慕鳳=追遠齋·慕遠齋·鳳崗齋의 약칭) 삼재(三齋)를 오늘날과 같이 유지·보존하기까지는 수 많은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국의 일가 종현들의 성원과 협조로 대과없이 회장직을 이임할 수 있게된데 대해 감사한다.

1979년 영광군종친회 창립회장(15년간 재임)을 시작으로 1980년에 전남종친회 상임부회장(13년간 재임), 1980년3월 삼재관리위원회가 창립되면서 상임부회장(13년간 재임), 1994년 3월 吉洙회장의 잔여 임기 1년을 포함하여 2012년 3월까지 삼재회장(17년간 재임)을 거치면서 약 33년간 요직을 맡아 종사에 관여해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삼재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①追慕鳳 삼재 진입로 입구에 각각 안내표석을 건립했고 ②白岬韓侍郎洞遺墟址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120평을 매입, 追慕兩齋종중 명의로 등기했고 ③追遠齋 임야 및 전답이면서 다른 성씨의 소유로 되어있는 30여 正地를 찾아내어 삼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했고 ④李容基군수에게 건의하여 追遠齋 진입로 500미터를 새마을사업으로 확장하고 포장까지 했다. 1981년에는 추원재 산소주변에 法聖崔씨의 묘 9基가 盜葬되어있는 것을 발견, 그 자손들을 추적하여 移葬하도록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

아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해결하기도 했다.

1982년부터는 老朽된 추모봉 삼재의 중보수공사를 시작하여 追遠齋와 慕遠齋의 正室을 중수 복원하고, 추원재의 門間 龍龕門과 모원재의 門間 孝綱門은 7間으로 각각 신축했으며, 庫舍들도 새로 지었다. 이어 鳳崗齋 正室을 중보수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門間 念修門을 신축하면서 예산이 한푼도 없어 당시 재무를 맡고있던 東錫 현 회장이 농협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800만원의 빚을 얻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장까지 새로 쌓았던 일은 지금도 감회가 새롭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영광군청에서 과장으로 재임중이던 당시 東錫재무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을 열람하여 타인명의로 되어있던 追慕兩齋종중의 門田畝 98필지를 찾아내어 追慕종중 門田畝으로 정정, 이전등기를 하여 바로잡았다.

가장 어려웠던 일 중의 하나는 1995년 추원재 주변 약 30만평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농공단지개발된 것을 모든 회원들이 합심하여 천신만고 끝에 백지화시켰던 쾌거이다.

또한 失傳된 4위 선조(2·3·4·5세조)의 추모단을 1985년 음 10월 1일 시조묘역에 모시기 전까지 추원재에 4위 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에 앞서 시향을 봉행해왔던 일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뿌듯하다.

그 밖에도 甲洙 제23대 중앙회장께서 결단을 내려 총회 결의를 통해 6교대동보에 7세로 올려진 예빈운공을 남북통일이 되어 확인할 때까지, 초교부터 5교까지의 기재와 삼재 각 묘비 및 신도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세로 바로잡은 결정이 나의 재임중에 이루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

## 방치된 분묘 연고일가를 찾습니다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운리 산31 연미산(금강 주변)에 있는 약 300년 전의 어느 청주한씨 일가의 분묘가 관리를 해오던 자손들의 발길이 10여년 전부터 끊기면서 황폐화되어가고 있어 산주(山主)인 석구(33세·문정공파)일가가 분묘의 연고자를 찾고 있습니다.

석구일가는 휴대전화 010-3715-4353 으로 연락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연락이 없을 경우 이장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제5대 국새 인뉴 금속공예가 相大일가의 작품



국새 인뉴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相大일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5대 국새(國璽)의 인뉴(국새의 손잡이)는 지난해 모형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금속공예가 相大(52)일가의 작품으로 채택되어 큰 영광을 차지했다.

예왕(穰王)이 예왕지인(穰王之印)이라는 국새를 사용한 것이 시초로 전해지고 있는 국새는 임금의 국사(國事)에 사용했던 관인(官印)으로, 이번에 제작된 제5대 국새는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 훈장, 포장증, 고위 공무원의 임명장 등 국가적인 문서에 사용된다.

상대일가의 작품인 인뉴는 한쌍의 봉황 위에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

모양으로 되어있다. 금, 은, 동, 아연,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된 국새의 크기는 가로X세로X높이가 10,4cm, 무게는 3,38kg, 제작비는 2억1,500만원, 인문은 훈민정음체이다.

相大일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를 졸업한 후 20여년간 전통금속공예가로 활동해 왔으며, MBC전통사극 주몽, 선덕여왕, 이산, 동이 등에 쓰인 왕관, 비녀, 검 등 다양한 장신구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궁중유물인 고궁박물관 소장 삼인검을 제작하기도 했고 20여 차례의 공모전 수상과 기능경기대회 심사장 및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 우리나라 국새의 유래

고려시대에는 요(遼), 금(金), 원(元), 명(明) 등에서 금인(金印), 부마 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등의 도장을 보내왔으며, 이조시대에 와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세종(世宗)은 체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嗣)를, 성종(成宗)은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제작하여 사용했는데, 영조(英祖) 때에 와서는 대보(大寶), 시명지보, 이덕보(以德寶), 유서지보(諭書之寶), 과거지보(科擧之寶), 선사지기(宣賜之記), 동문지보(同文之寶), 규장지보(奎章之寶), 준철지보(濬哲之寶), 준명지보(濬明之寶), 흠문지보(欽文之寶), 명덕지보(命德之寶), 광운지보(廣運之寶) 등 많은 국새를 사용했다.

이조 말기 고종 때에 와서는 이전의 국새를 모두 폐기하고 대조선 국보(大朝鮮國寶), 대조선대군주지보(大朝鮮大君主之寶), 대한국새(大韓國璽), 황제지새(皇帝之璽), 황제

지보(皇帝之寶), 칙명지보(勅命之寶), 제고지보(制誥之寶), 대원수보(大元帥寶), 원수지보(元帥之寶) 등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대한민국 수립 후에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승) 제83호로 새로운 국새를 마련한 것이 제1대 국새이며, 이어 1963년 1월부터 새 국새 규정에 따라 가로, 세로, 높이 7cm의 정사각형에 한글 전서(篆書)로 「대한민국」이라고 가로로 새겨진 국새를 사용한 것이 제2대 국새이다. 이후 1999년 2월 가로, 세로, 높이가 10,1cm의 새로운 제3대 국새를 마련



하여 사용했으나 2005년 국새에 균열이 생겨 다시 제4대 국새를 제작하여 2008년 2월부터 사용했다. 그러나 제4대 국새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제5대 국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해 공모를 통해 채택했으며 2011년 10월 25일 '저축의 날'에 황순자씨에게 수여한 '국민훈장목련장'에 최초로 날인되었다.

# 충정공 지식 8매 관람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충정공의 지식을 관람한 종친회 임원들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삼성출판박물관에 충정공(忠靖公·諱應寅)의 지식(誌石) 8매가 소장되어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정공문중의 현수 전회장(전 중앙종친회장), 相根회장을 비롯하여 중앙종친회 陽命상임고문, 駿錫문간공파회장, 基虎도유사, 星燮부회장 등 15명의 임원들이 지난 6월 18일 박물관을 방문,

관람했다.

지식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여 무덤앞에 묻는 도판(陶板)으로, 충정공의 지식은 묘역이 도굴(盜掘)당했을 때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충정공(1554~1614)은 조선 선조 때 6조(曹)의 판서직을 역임하고 우의정에 오른 공신이다.

# 장도공파 홍림공 묘비제막 및 석물치장 고유제 봉행



묘비제막을 마친 일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도공파 홍림공 문중에서는 홍림공(22세)을 비롯하여 23세 병열, 병훈 묘소에 비석, 상석, 돌레석, 망두석 등을 설치하여 묘소를 정비하고 지난 6월 3일 묘비 제막 및 석물 치장 고유제를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1리 덕목동 동고현 선산에서 봉행하는 한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1리 덕목동 마당현 선산에 종중 납골묘 공원을 조성하여 조상을 모셨다.

이날 고유제에는 경기도종친회 光傳회장, 이덕 상무이사, 정은공종친회 상설 고문, 상후회장, 홍림공종친회 상봉회장, 상풍총무, 원덕이사, 병

열 종손집안에서 재성일가, 병훈 종손집안에서 현덕일가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종친회 光傳회장은 화환과 축하금 금일봉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통해 홍림공 문중의 승조돈종을 치하하는 한편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 홍보물을 배포하고 한글과 한문이 겸용되는 「7교정주한씨한글대동족보」 편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위 일가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 종보 연말까지 매월 발행

중앙종친회는 격월로 홀수달에만 8면으로 발행해오던 종보「청주한씨보」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오는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짝수달(6·8·10·12월)에도 4면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짝수달에 4면으로 발행되는 종보는, 주로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차질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작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인천시 신임회장에 曁燮일가 “인터넷족보 편찬에 적극 참여” 강조



인천광역시종친회는 지난 5월 25일 오전 11시 수림공원 별관에서 2012년도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도 경과보고, 감사보고,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2년도 운영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신임회장에 曁燮(사진)일가를 선출했다.

曁燮회장은 시조하 32세손으로 정당공(諱公衍)파이다. 경북 영덕군이 고향이며 산업계에 종사하다 1988년부터 瑞典공업주식회사, (주)韓德상사를 설립, 회장으로 재임한 후 2004년 퇴임한 경영인 출신이다.

曁燮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44

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시종친회는 전국 지역종친회 중에서도 모범적인 종친회로 성장하여 중앙회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하고있다”고 말하고 “淸韓閣 건립 때도 배정된 헌성금을 초과, 헌성하여 명문의 후예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했듯이 중앙회에서 추진중인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과 장학기금을 35억원으로 확충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京鏞82·남구 용현3동451-43)일가에게 장수경로상, 奉洙일가와 李平鎬씨(부평구 부평5동161-4)에게 효자와 효부를 표창하는 효행상, 殷鏞강화군양도면도장리246)일가에게 공로패, 白亨基씨와 宋美子씨(남구 용현동대우 Apt103-202)에게 감사패, 진영(성신여대 1학년)일가에게 (재)정한장학회내 한인단위장학회 장학증서를 각각 수여했다. 한편 지난 6월 1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喬桐面·섬) 종친회 회장에 기호일가가 선임되었다.

# 김포시종친회장에 天洙일가 회장단 중앙회 방문·협조 다짐



天洙회장(왼쪽 두번째)등 신임회장단이 중앙회를 방문,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김포시종친회는 지난 2월 통진읍 내 은광식당에서 4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는 한편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을 개선, 회장에 天洙일가, 부회장에 彰河일가, 총무에 鍾郁일가를 선출한 다음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화합하여 종친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신임 회장단과 임원들은 지난 7월 12일 중앙종친회를 방문,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편찬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종사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 구미시종친회장에 相雲일가



경북 구미시종친회는 지난 4월 28일 사곡동 삼오식당에서 35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泰鎭회장의 후임에 相雲(사진)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부회장에 오석, 기조, 택수일가, 총무에 상근, 감사에 동수, 상안일가를 선임,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전임 泰鎭회장은 1987년 구미시종친회를 창립, 지난 25년동안 총무직과 회장직을 역임했다.

# 몽계공파 회장에 永洙일가 취임 감사에 청호, 석관·총무에 병록일가



몽계공(夢溪公)파 종중에서는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永洙(사진)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감사에 청호, 석관 일가를, 총무에 병록일가를, 재무에 판명일가를 각각 선임했다.

永洙회장의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에멘타운 101동 409호이며, 전화번호는 010-3646-9545, 053-322-9889이다.

# 상진 금산군종친회장 유임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산군종친회는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읍내 한길공원가든에서 8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상진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

원의 유임을 의결했다. 상진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 청주한씨 명문의 후손들이라는 긍지를 갖고 친목과 화합으로 참된 삶을 영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무주군종친회장에 관규일가



무주군종친회는 지난 6월 총회를 열고 관규일가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에 영임일가, 이사에 장호, 복석일가를 각각 선임했다.

관규신임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송조돈목의 정신으로 조상을 잘 모시고 일가들께서는 화합하여 종친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규회장의 연락처는 011-455-8662

# 도장동공파, 80세 이상 일가들에게 월 30만원의 건강지원금 지급

경기도 군포시 도장동 소재 도장동공파종중(회장직무대행 明夫)에서는 80세 이상의 문중 일가들에게 월 30만원, 한 가정에 80세 이상 일가가 2인이면 월 40만원의 건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중내의 아름다운 사연이 지난 7월 11일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의 홍보를 위해 순회방문중인 편찬팀에 의해 밝혀졌다. 도장동공파는 三錫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明夫일가가 회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 재개

-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
-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 말까지 입력, 개통
- ③ 완결 후 신청받아 전질 및 파보책 발간계획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족보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글인터넷족보를 원합니다-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가 내년초 완결됩니다-

- 지난 2010년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목표로 편찬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개통하여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 중에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2012년 11월말 마감 때까지 수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며, 2013년에 들어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발간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 등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가들께서는 빠짐없이 조속히 수단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내고 바로 개통됨으로 일제히 검색 및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 입니다.
- 50인 이상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入譜),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2,000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X15cm=4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은 중앙총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 중앙총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총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중앙총친회로 전화 (02-720-6370) 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
  -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2월15일 생, 1980년2월15일 졸.
  -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을좌(乙坐) 합평 또는 쌍분(雙墳)
  -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를,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총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 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 ①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 ② 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 ③ 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 ④ 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 ⑤ 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鑄成)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 ⑥ 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⑦ 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총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 ⑧ 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⑨ 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 ⑩ 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⑪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